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기 홀렙수술(홀뮴레이저)

전립선 비대증 홀렙 수술 (홀뮴레이저)후기

28.01.2023

알바영감

반쯤아날로그 영감의

인생2막 좌충우돌 생존기

목차

1. 전립선비대증 증상, 검사, 처방약

전립선 비대증 증상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전립선 비대증 검사

전립선 비대증 처방약

2. 수술 전과 후 증상의 변화

수술후 급뇨

수술후 요실금

수술후 혈뇨

수술후 통증

수술후 졸은점

수술후 운동은 언제

3. 전립선 비대증 홀렙수술 과정

병원찾기

정밀검사, 수술결정

입원

수술

회복

퇴원

소변줄 제거

현재 상태

4. 전립선비대증 수술 Q&A

5. 블로그 포스팅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

수술전후 대소변 관련한 생리적인 현상의 변화

수술전후 성기능과 관련한 변화와 부작용

수술후 개선된 신체의 다른 부분

병원비 총액과 급여 및 비급여 명세

보험회사 실비 청구 및 진단금 청구

I. 전립선 비대증 증상, 검사, 처방약

전립선 비대증 증상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증상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항이 있는지 눈여겨 보시고 구체적인 진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를 이용해서 본인의 진행 정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뇨	예전보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 것을 느낍니다.
빈뇨	소변을 보는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잔뇨감	소변을 보고 나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단절뇨	소변을 보는 중간 중간에 소변줄기가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급뇨(절박뇨)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어려워 옷을 내리기도 전에 소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야간뇨	수면 중 소변을 보기 위해 1회 이상 일어납니다.
배뇨 지연	화장실에 가서도 한참 있어야 소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실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변이 나와 속옷이 젖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노폐	평소에는 그럭저럭 소변이 나오다가 피곤하거나, 감기약, 술 등을 먹은 후에 소변은 마려운데 전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혈뇨	소변에 붉은 빛이 보이거나, 소변 전체가 빨강게 나오기도 합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IPSS라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로 먼저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저는 총 28점이 나와서 점수표 기준으로 심각한 중증으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고 점수가 안 좋게 나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IPSS)

최근 한 달간 본인의 증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점수칸에 표시하십시오

증상	전혀 없음	5번중 1번	5번중 1~2번	5번중 2~3번	5번중 3~4	거의 항상
평소 소변볼 때 다 보았는데도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평소 소변을 보고 난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평소 소변을 볼 때 소변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줘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평소 소변을 참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평소 소변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평소 소변을 볼 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평소에 잠을 자다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룻밤에 몇번이나 있습니까?	없음	1번	2번	3번	4번	5번
	0	1	2	3	4	5

7점 이하 경미 8-19점 중등도 20점 이상 심각

IPSS 총 점수 = () 점

위의 IPSS 체크리스트를 직접 하면서 처음엔 뭘 이런 간단한 한 장짜리 문서로 병을 판단한다고?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보니 IPSS 체크리스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국비뇨기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선택할지 고민이 될 때는 항상 안 좋은 쪽이 정답입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립선 비대증 검사



소변검사 및 요속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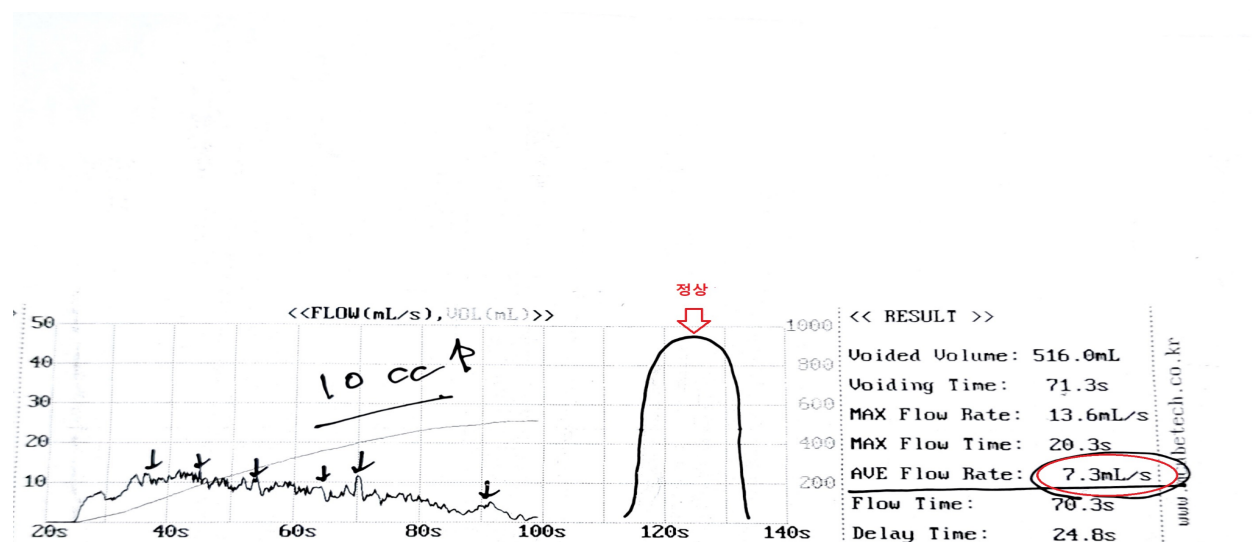
맨처음 접근처 비뇨의학과 의원에 가서 제가 받은 검사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광초음파검사, 직장수지검사, 경직장전립선초음파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 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화장실 가서 깔때기에 소변 보고 피 뽑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선생님이 오셔서 복부에 방광 초음파 검사하고 직장을 통해 수지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직장내 검사를 할 때는 느낌이 조금 안 좋긴 합니다만 심호흡을 하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PSA 전립선특이항원수치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1.16 ng/mL 으로 나왔습니다. PSA 정상 범위는 4 ng/mL이하인데 그 이상이면 전립선암이 의심되므로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와 MRI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암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수치가 4 ng/mL이하로 나와서 많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양성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의 크기는 38.42g (정상 20g의 약 2배), 소변 잔뇨량이 93.12cc (정상 50cc 이하), 소변 속도는 7.3ml/sec (정상 20ml/sec), 소변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종 모양이어야 정상인데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전립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성격과도 관련이 많아서 예민하고 민감한 성격일수록 불편함을 더 많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처방약

처방받은 약은 증상을 완화해 주는 약으로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각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브랜드의 약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저혈압, 부정맥, 어지럼증, 두통 등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약 복용 기간 동안 종종 어지럼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기약과 같이 복용하지 말라고 해서 감기에 안 걸리려고 많이 조심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저주파 치료와 약물치료를 같이 하면서 고식적 치료를 권하셨습니다. 완치를 위한 치료를 의학적으로 근치적 치료하고 부르며 생명 연장과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한 치료는 고식적 치료라고 합니다.

전립선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로는 소팔메토, 사코사놀 성분을 함유한 것과 글리신, 글루타민, 알라닌 3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전립선 영양제도 시중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효과도 다르고 부작용도 각기 다르므로 각자에 맞는 약을 잘 선택해서 복용하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을 통한 근치적 치료가 아니면 전립선비대증은 결코 완치가 어렵고 좋아 졌다가도 관리가 소홀하면 다시 나빠질 거고 또한 관리가 말이 쉽지 어려운 거라는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30대 초반부터 꾸준히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혈압과 당뇨에 가족력이 있기에 몸무게는 항상 유지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항상 68~70kg를 유지하며 살았기에 나름 열심히 관리를 했다고 자부했으나 작년에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는 느꼈습니다. 건강은 관리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실 5년간 관리를 잘해서 약도 끊고 건강을 찾으신 분도 압니다. 하지만 그분이 5년 동안 혹독하게 노력하신 걸 들어보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전립선 비대증 홀렙수술 후기

작년에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주요 증상과 처방약 복용에 대한 후기를 포스팅 했었죠. 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저는 수술을하기로 결정했었고 새해가 오기 전 작년 말

12월에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회복 기간이 지난 뒤에 수술 후기를 포스팅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수술 후 37일이 지난 지금 수술 후기를 써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 의료인이 아니므로 제 얘기는 전부 저의 체험과 느낌을 토대로한 것이기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서 참고로 봐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수술 전과 후 증상의 변화

	수술전	수술후	비고
세뇨	심함	없음	
빈뇨	심함	없음	
잔뇨감	심함	없음	
단뇨	심함	없음	
급뇨(절박뇨)	없음	가끔 있음	*아래참조
야간뇨	최소 두번	없음	
배뇨지연	가끔	없음	
요실금	심함	가끔 있음	*아래참조
뇨폐	가끔	없음	
혈뇨	없음	없음	*아래참조

급뇨 (절박뇨) 와 요실금 그리고 소변볼때 약간의 통증을 제외한 다른 증상들은 완전히 또는 현저하게 개선 되었습니다.

오늘이 수술한 지 37일째이고 원장 선생님이 한 달 정도는 조심해서 생활하라고 하였고, 석 달 정도 지나면 급뇨(절박뇨) 와 요실금 그리고 통증 까지 현저히 개선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술 후 급뇨(절박뇨)

급뇨(절박뇨)가 수술 전에는 없었는데 수술 후에는 하루에 한두 번은 꼭 경험합니다. 급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워 잘 참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소변길이 넓어져 소변량도 많아지고 요속도 빨라졌지만 괄약근의 제어 능력은 예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석 달 정도 지나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술한 후에 바지는 체육복이나 허리에 고무줄이 들어간 편안한 바지를 입으세요. 허리 벨트 푸는 동안 민망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는 빈 물병 하나를 꼭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으로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제때 볼일을 못 보는 응급상황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요실금

수술 전에는 비대해진 전립선으로 인해 좁아진 요도 안에 소변이 끝난 후에도 남아 있던 잔뇨나 방광에 남아 있던 잔뇨가 졸졸 새는 형태의 요실금이었다면 수술 후 요실금 증상은 급뇨(절박뇨)로 인해 요도 괄약근이 제어가 안되어서 소변을 참지 못해 새어나오는 요실금으로 양상이 서로 다릅니다. 계속해서 새어나오는 요실금이 아니라 급뇨 현상이 있을 때 참지 못해 약간 새는 그런 요실금 현상으로 일회성입니다. 석 달 뒤에 급뇨(절박뇨)가 개선될 때 요실금도 현저히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수술 후 혈뇨

수술이 끝나고 약 20일 까지는 혈뇨가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비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간헐적이었다가 결국엔 색깔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수술 후 통증

수술 바로 직후에는 통증이 제법 심합니다. 통증이란 소변을 볼때의 통증이며 그 이외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상처 난 부위가 스칠 때 느끼는 통증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지금은 약간의 따끔거림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석 달 뒤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수술 후 좋은점

제일 먼저 야간뇨가 해결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너무 지대해서 수차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되어서 **수면의 질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으니 피로감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소변을 보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잔뇨감이 없어져 기분이 항상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매일 매일 먹는 약이 자꾸만 수복해지는 나이인데 하나라도 줄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수술 후 운동은 언제?

평소에 활발하게 움직이던 터라 가만히 있으려니 너무 답답해서 참지를 못하고 수술후 열흘이 지나 아파트 내 헬스장에 갔습니다. 혹시나 뒤통이 날까 봐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분 정도 걷고 스트레칭을 조금 했지요. 소변볼 때마다 혈뇨가 조금 비쳐서 조금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혈뇨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가벼운 운동은 해도 된다고 하셨기에 20일 정도 지나서는 걷기와 달리를 섞어가면서 했습니다. 몸 상태를 보가면서 달리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지금은 걷고 달리고 가벼운 웨이트도 합니다. 몸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석 달 정도 걸린다고 원장 선생님이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지요.

수술 후 첫 진료



수술하고 그다음 날 소변줄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었고 어제는 수술 후 37일 만에 첫 진료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려고 메모장에 적어왔는데 제가 물어 보기도 전에 먼저 씁니다.

가끔씩 소변을 못 참아서 급뇨가 있을 거고 참지 못해서 새는 요실금

증상도 있을 거고 소변볼 때 아직 짜릿한 통증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은 시원하게 잘 나오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수술 후 석 달만 지나면 모든 증상이 개선되고 좋아진다고 장담하십니다.

.3.전립선 비대증 흘렘수술 과정

1. 병원 찾기

최초에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은 곳은 집 근처 비뇨의학과 의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처방해 주는 약을 복용하던 중에 수술을 결심하였고 수술을 위해 진료 예약을 한 곳은 어느 한 대학병원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병원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진료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인터넷 검색과, 블로그, 너튜브등을 통해 수술을 잘하시는 강남 어느 병원의 원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대학병원 진료 날짜 전에 원장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진료를 한번 받고 상담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2. 정밀검사 후 수술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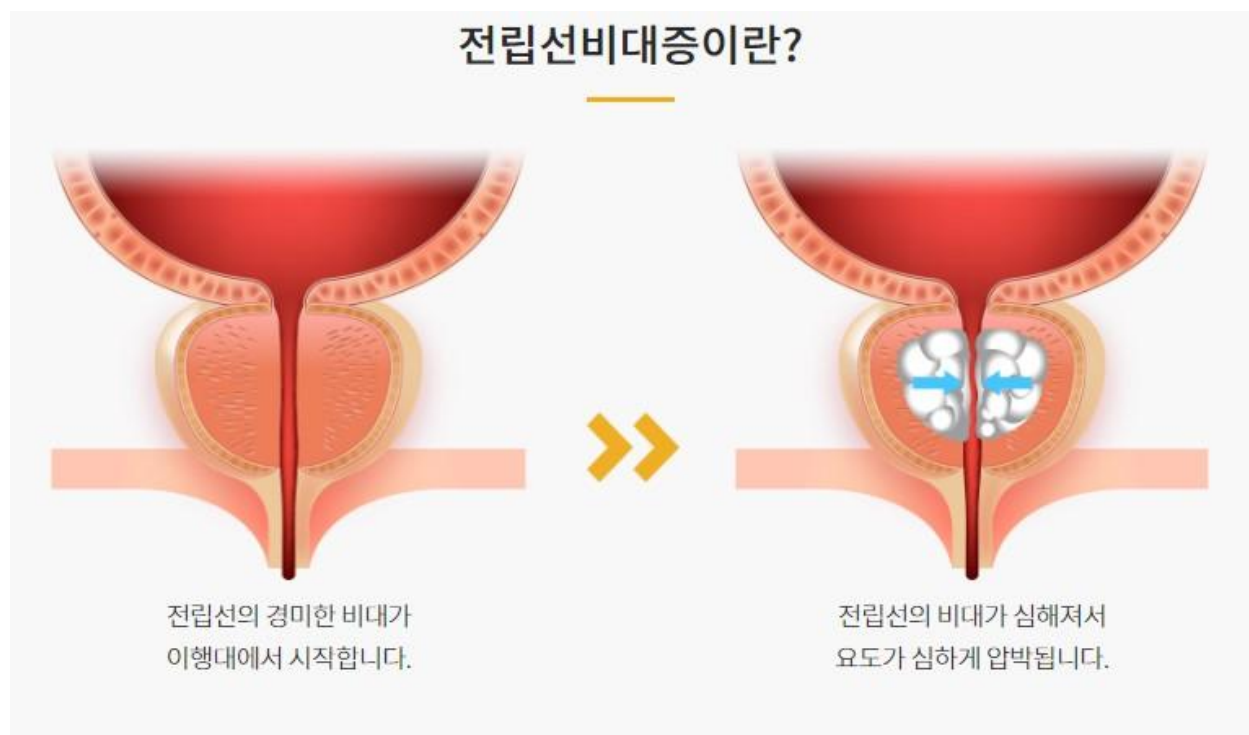
진료 당일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 각종 검사를 모두 다시 하였는데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기본으로 원장 선생님이 장수지검사와경직장 초음파검사, 방광 초음파검사를 직접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밀 검사를 직접 행함으로써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 수술이 결정되었을 때 한 치의 오차 없이 수술이 진행되어야 수술 후 부작용도 적고 재발도 없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아래 예시 처럼 오렌지 껍질을 제외하고 안쪽 알맹이만
제거하는 것처럼 전립선 피막 안쪽의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최대한 남김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동네 비뇨의학회 의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본인도 수년 전에 수술을 받았고 연로하신 원장님의 아버님과 장인어른도 수술해 드렸는데 지금 편하게 생활하신다고 합니다.

신체 노화로 요도 주위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소변 배출을 막아 여러 가지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 요로 감염, 방광결석, 급성요폐, 신부전 같은 합병증으로 발전될수도 있고 방광기능 회복이 불가할 수도있다고 합니다.



출처 : 골드만비뇨의학과 의원

무엇보다 제 말에 경청해 주시고 불안해하는 저에게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현상 이므로 약물치료를 해서 개선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지만 저는 수술을 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대한민국 전체전립선비대증 홀렙수술의 40%를 한다고 자랑하십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고 친절하고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원장님과 상담한 후에 수술을하기로 결심했고 대학병원에 예약한진료는 취소했습니다.



출처 : 골드만비뇨의학과 의원

3. 입원

수술 날짜는 21일 뒤에 잡혔습니다. 아침 첫 수술이라 일찍 병원에 가야 했는데 수술날자 받아놓고 기다리는 동안 처음엔 별 걱정이 없었지만 수술 날짜가 다가오자 마음이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설쳤습니다. 수술 전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질 못하고

수술 당일 병원에 도착했더니 아침 일찍 수술 준비를 하던 간호사분이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술날 혹시나 나타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었다 합니다. 9시에 수술실 들어가서 10시 조금지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수술시간은 약 40분 정도 걸렸고 수술 전후 준비와 정리하는데 20여 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4. 수술

하반신 척추 마취만 했기에 수술 동안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수술하는 동안 몇 번씩 진행 사항을 알려 주시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수술 도중 몸이 좀 떨려서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간호사 더러 담요와 히터를 준비하라고 오더 하십니다. 짧은 수술 시간이지만 마음만은 편하게 수술을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5. 회복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 10시쯤 옮겨지고 하반신 마취가 깰 때까지 고개나 등을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 아래쪽은 아무 감각이 없었고 등도 얼얼했습니다.

진통제, 수액, 소변 주머니등 줄은 주렁주렁 달려있고 2시간 정도 지나니 허리부터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지나 다리에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엉덩이가 제일 마지막으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마취가 다 풀리자 그제야 침대에 비스듬히 누울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식사가 제공되어 그날 처음 식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수술 전날 밤 12시부터금식입니다.

6. 퇴원



식사도 끝나고 수액과 진통제를 다 맞고 난 뒤 오후 5시쯤 퇴원을 했습니다. 아침 8시 40분에 입원해서 하루 만에 퇴원을 하게 된 거죠. 소변줄은 달고 퇴원을 했는데 처음엔 소변 주머니까지 달고 퇴원하는 줄 알고 심히 걱정을했습니다.

소변 주머니는 소변줄과 분리형으로 퇴원할 때는 소변 주머니는 분리해서 따로 소지하고 소변줄의 끝부분을 실링 처리하고 덜렁거리지 않게 허벅지

안쪽에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편한 체육복 바지를 입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되는 패드를 입으니 불안한 마음이 든든합니다. 보름치 처방약과 한 달 뒤 진료예약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올 때는 제가 운전했지만 돌아가는 길에는 보호자가 운전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는 어려우니 수술 당일 동선을 미리 생각해서 운전하실 분이나 보호자와 같이 오셔야 합니다.

7. 소변줄 제거

수술 당일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 계속 소변 주머니를 차고 누워 있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병원에서 간호사분이 가르쳐 주더군요. 굳이 집에서 소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하지 않아도 되며, 소변이 마려울 때 화장실 가서 클립으로 실링 한 소변줄 한쪽 끝을 풀고 소변을 보고 다시 클립으로 실링 하면 된다고 해서 집에서 소변 주머니를 달지 않고 조금은 편하게 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소변줄을 달고 집에서 대변을 볼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을 주면 한쪽으로 바람이 빠져서 응가 하는 데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차례 시도하다가 통증도 느껴지고 해서 할 수 없이 소변줄 한쪽끝을 접어서 바람이 안새게 한뒤에 힘을 주니 힘이 걸려서 겨우 응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다음날 병원에 다시 방문해서 소변줄을 제거하고 왔습니다. 수술 당일 퇴근하고 그 다음 날 전철 타고 몇 시간씩 이동해도 된다는 게 신기합니다. 조금 불편한 정도이지 통증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8. 현재 상태

현재 수술 후 37일째 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급뇨 (절박뇨)와 요실금을 하루에 한두 차례 경험하고 있기에 바지는 항상 편한 옷으로 입고 차 안에 빈 물통도 항상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변볼 때마다 요도의 통증이 수술 후 처음에는 심했는데 점차 줄어 들었고 조금 짜릿한 느낌은 아직도 있습니다. 석 달 뒤면 이 같은 증상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니 조금 더 참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서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Q&A

Q. 수술 부작용으로 급뇨와 요실금 발생한다는데?

수술 후 단기적으로 급뇨와 요실금이 발생하나 3개월 정도 회복 기간이 지나면 증상이 거의 개선된다

Q. 수술은 개인병원이 좋은가? 대학병원이 좋은가?

개인이나 대학병원이나의 차이보다는 담당 의사의 축척된 경험과 기술이 더 중요

Q. 여러 가지 수술법 중 왜 홀렙수술인가?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기 때문에 재발 위험성이 희박

Q. 수술하면 성 기능이 없어지는 건가?

개인에 따라 만족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성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Q.PSA 수치와 전립선 비대증의 관계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PSA 수치는 올라가며 수술 전후 환자들의 PSA 수치를 비교해 보면 수술 후 PSA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짐

Q.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증과의 상관관계는?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질병.

다만 두 질병을 함께 갖고 있는 장노년층이 많다

Q. 수술비는 의료 보험이 적용되나?

일부 급여가 되고 비급여 부분도 있다

Q. 병원비 실비보험 또는 진단비 보험 되나?

담보 내역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 보험이 된다

PSA 수치 (Prostate Specific Antigen)

전립선암 검사를 위해 1차적으로 PSA 검사가 선행됩니다. 전립선특이항원검사 라고 하며 일반적인 PSA 정상수치는 0~4gn/ml 이며 이 PSA 수치가 높으면 MRI 검사와 조직 검사가 권장되는데 이러한 검사가 간단한 검사는 아닙니다.

꼭 암이 아니더라도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같은 전립선에 질환이 생기면 통상 PSA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암일까 봐 MRI 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PSA 수치가 올라갈 때마다 걱정이 돼서 이런 검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 되어 PSA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 비대증 수술을 하게 되면 PSA 수치가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로 해결?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어떤 분은 약물 치료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한의원에 다니시고 요즘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전립선 생약성분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 식이 요법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이 모든 걸 동시에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모든 분의 증상이 개선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도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매일 걷고 달리고 헬스장 다니고 집에서는 요가도 하고 건강한 식이요법을 되도록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호르몬 변화로 인한 노화 현상이라는 맞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고 배뇨장애가 심해진다면 수술 외에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다면 그때까지 노력한 운동요법, 식이요법 각종 복용한 약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작용을 충분히 견딜만하고 그와 상반된 효과가 지대하다면 수술을 선택해서 인생 2막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20년, 30년, 40년을 시작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게 수술을 직접 경험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원 찾아가시는 길

이 글은 해당 병원의 후원이나 기타 원고료를 받은 적이 없이 제 개인적인 솔직 후기임을 밝힙니다.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뱅뱅사거리 방향 400m)
- 신분당선 강남역 4번 출구
- 3호선 양재역 3번 출구 (강남역 방향 800m)

출처: 골드만비뇨의학과 의원



- 차량 이용시 : 강남구 강남대로 320 황화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골드만 비뇨의학과 담당
주차 안내원에게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 골드만비뇨의학과 의원

5. 블로그 포스팅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1. 수술 전후 대소변 관련한 생리적인 변화

	수술전 소변	수술후 소변
증상	자연뇨: 금방 안나옴 세뇨: 가늘게 나옴 빈뇨: 자주 봄 잔뇨: 보고난 뒤 남아 있는 찝찝함 단절뇨: 중간에 끊김 야간뇨: 밤에 소변봄 급뇨: 못참음 요실금: 새고 젖고 뇨폐: 소변이 안나옴 혈뇨: 피가 비침 지속시간: 가늘게 길게 지속	자연뇨: 금방나옴 세뇨: 굵게 나옴 빈뇨: 초기에 자주 보다가 개선됨 잔뇨: 없음 단절뇨: 없음 야간뇨: 없음 급뇨: 가끔 있음 요실금: 가끔 있음 뇨폐: 없음 혈뇨: 초기에 조금 비치다 없어짐 지속시간: 굵고 짧게 끝남
	수술전 대변	수술후 대변
증상	힘을 많이 주었음 굵기가 가늘 부서지거나 끊겨 나옴 휴지로 닦을게 많음 아침 식후에 증가함	힘을 적게 줘도 응가 잘나옴 굵기가 굵어짐 가래떡처럼 길게 나옴 휴지로 닦을게 없음 아침 식전에 증가함

수술후 급뇨와 요실금 증상은 같은 증상에서 기인

수술로 인해 소변길이 넓어진 상태이고 괄약근의 제어 능력도 저하된 상태 (그동안 배뇨장애로 인해 약한 소변에 맞춰서 괄약근의 제어 능력 저하된 상태) 에 한번 요의를 느끼면 배출 되어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제어 능력이 떨어진 괄약근이 잡그지 못함. 수술후 3개월이 지나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 온다고 함

소변 볼때마다 음경에 통증이 있음 (정확히 말하면 음경내부의 요도)

전립선 생살을 도려내서 소변길을 넓혀 놓았기에 상처부위에 많은 양의 소변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함. 소변볼때 약간 뜨끔거리는 느낌에 시큰 거리는 느낌에 뭔가 복잡한 느낌인데 기분이 안좋은 느낌임. 이 부분도 수술 직후에는 심했다가 점점 줄어들었고 현재는 조금 뜨끔한 정도이며 수술후 3개월 정도 지나 수술 부위가 거의 아물면 통증이 없어질 거라고 함

빈뇨(소변횟수) 개선

수술 전에는 하루에 14회~16회 정도 소변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두번, 아침에 두번, 오후에 두번, 저녁부터 취침까지 네번, 총 14번은 기본이였고 추가로 술이나 음료를 먹거나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횟수가 더 늘어났죠.

지금은 하루에 8회~10회 정도 소변을 봅니다. 아침에 두번, 오후에 두번, 저녁부터 취침까지 두번, 이렇게 기본 8번인데 술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수분을 많이 섭취한 날은 10회까지 늘어 나는것 같습니다.

2. 수술 전후 성기능과 관련한 변화 또는 부작용

역행성 사정

수술전에 원장선생님으로부터 성기능 관련 부작용으로 “역행성 사정” 이 발생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행성 사정은 성적 극치감(오르가즘)을 느낄 때, 정액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른 오르가즘(Dry orgasm)" 이라고도 불리며 대개는 정액이 요도 앞쪽으로 나가지 않고 뒤쪽 방광으로 흘러들어가 소변과 섞이게 됩니다. 사정이 될때 전립선 뒤쪽에 있는 방광 출구가 괄약근에 의해 굳게 닫히게 되는데 방광 출구가 닫히지 않게 되는 경우 정액이 앞쪽 요도로 나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방광쪽으로 진행하여 역행성 사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역행성 사정은 전립선 수술을 한 경우,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항우울제 복용시에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몸에 별다른 손상을 입히지 않으므로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합니다.

실제 경험을 해보니 성기능상 별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발기도 정상적으로 되었고 사정하는 느낌도 그대로 인데 밖으로 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 약간 요상한 느낌. 만족감이 조금 상쇄되는 느낌이 있었습시다만, 이런 느낌도 익숙해 지면 괜찮아 지지 않을까 합니다. 원장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전립선 조직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운데로 모여져 제자리를 잡게되면 정상기능이 회복되어서 역행사정에서

정상 사정 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수술 받은 환자중에 포기 했다가 1년이 지난 뒤에 밖으로 분출이 된다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생활이 최 우선순위도 아니고 우리 부부는 스킨쉽 만으로도 애정표현이 충분히 되며 다른 취미생활로도 인생살이가 재미있습니다.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홀렙수술을 하면 성생활을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발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을 수술하는 경우는 밖에서 부터 전립선을 떼어내기 때문에 발기 신경 일부가 절단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비대증 수술은 요도 내부로 들어가서 비대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발기 신경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역행성 사정으로 인해 개인별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건 있을수 있겠으나 수술로 성기능이 불능이 되는건 아닙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건 다른 쪽에서의 문제 일겁니다. 다른 이유로 인한 발기 부전이라 던가 심리적인 부분에 기인한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 문제는 약물복용 이라던가 다른 해결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수술후 직접 역행성 사정을 경험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수술후 개선된 신체의 다른 부위

수술후에 소변장애 개선된 부분 말고 추가로 제 몸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것은 아니지만 제가 제몸을 평생 봐오면서 느낀거라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말 신기 하지만 의학적으로 증명은 못할 뿐입니다.

네가지 정도 제몸의 다른 부위가 좋아짐을 느낍니다.

첫번째는

대변 습관이 달라진것 입니다. 항상 짜내기 식의 배변 습관이였습니다. 치약을 비유하자면 다쓰고 마지막에 조금 남은 치약을 짜내는 느낌의 배변 습관 이였죠. 응가는 가늘고 뚝뚝 끊어지고 묽고, 끝난 후에도 시원한 느낌이 안들고 뭔가 잔변이 남아 있는 느낌 이였죠. 그리고 항상 아침을 먹고 난뒤에 응가를 했습니다. 뭔가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서 채워져야 밀어내는 방식의 배변 습관 말입니다.

하지만 수술 한후는 응가를 할때 마다 완전히 달라짐을 느낍니다. 금방 산 새치약을 짜는 기분입니다. 가벼운 힘으로 부드럽게 나오는데 굵기도 굵어졌고 바나나 처럼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응가를 다 보고 나면 뱃속이 확 비워진듯이 개운합니다. 휴지로 닦을게 없습니다. 애들 응가 처럼 뒤끝이 깨끗합니다. 요즘 항상 응가를 다 본뒤에 변기안을 들여다 보는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응가 모양이 죽밥 처럼 하나의 무더기 였다면 지금은 긴 바나나 여러개가 껍질을 벗은 모양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말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블로그 포스팅에 어떻게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뇌피셜을 돌려보면,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만 누르고 있었던게 아니고 직장까지 누르고 있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안으로 비대해 지면서 요도를 누르고 밖으로 비대해 지면서 직장을 누르고 있다보니 배변 장애도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술로 인해 요도도 넓어지고 눌렸던 직장도 제자리로 돌아와서 지금 이런 좋은 배변습관으로 돌아온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두번째는

만성피로가 확실히 줄었다는 겁니다. 나이도 있으니까 쉬 피곤해 지는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점심을 먹고 오후가 시작하면 피곤이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피곤의 느낌이 제게는 항상 눈에서 시작됩니다. 두눈에 열감이 느껴지고 자꾸 뻑뻑해져서 비비고 눈물이 나고 두 눈탱이가 뒤로 쏙 꺼지는 느낌이 옵니다. 저녁이 되면 두눈이 거의 켕하게 되고 육신거리고 아프기 까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과도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안구 건조증 진단 받고 안약을 매일 넣기도 했고 눈안에 지방 덩어리 제거도 하고 안과를 몇군데 옮겨 다녔습니다.

신기하게도 수술한 후에 눈의 피로가 싹 없어졌습니다. 저녁까지 눈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안구건조증 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오던 눈물도 확 줄었습니다. 그동안 눈의 피로 때문에 몇년 동안 병원다니고 약먹고 신경쓰게 한방에 해결되었으니 안과 의사님들이 못고친걸 비뇨기과 의사님이 고쳐 버렸네요 이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가 있을까요?

세번째는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수술전에는 밤동안 기본적으로 두번은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자기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면 밤새 화장실 가는 횟수는 더 늘어났죠. 수술후 밤새도록 화장실을 안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술 직후에는 옛날 습관도 남아 있었고 불편해서 새벽에 깨서 소변을 보았습시다만, 수술후 2주일 정도 지난뒤 부터는 잠자는 동안 소변을 안봐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면의 질이 향상되어 낮동안 피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밤에 누워서 아침까지 쪽 잘 수 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깨는 바람에 아침이면 뒷머리나 뒷목이 묵직하니 기분이 안좋았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눈도 켜하니 그랬는데 밤새도록 안깨고 자니 몸이 날아갈 듯이 너무 좋습니다.

네번째는

하루동안 물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물을 벌컥 벌컥 들이켰죠. 그런데 어느때 부터가 그게 40대 접어 들어서 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 그때 부터는 물이 안 땡기더라구요. 몸에서 소변을 처리 하는게 불편해서 제 몸이 알아서 생존을 위해 다윈의 진화설을 저절로 받아들인 게 아닐까 싶네요. 식사때 물 마시는것 말고는 물을 잘 안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물이 맛있습니다. 물통을 끼고 삼니다. 건강하려면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은 마셔야 한다고 건강전도사들이 항상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부터는 저도 물을 많이 마실려고 합니다. 하수도가 개량되어 튼튼하게 되었으니 이젠 걱정없이 건강을 위해 매일 매일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이상 네가지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한뒤 소변장애 개선외에 제몸에 나타난 좋은 변화 입니다. 애초에 저는 이부분들이 같이 좋아질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도

믿지 못하고 신기해 하고 있습니다. 그저 소변장애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수술을 했는데 너무 소중하고 많은 것을 덤으로 얻어서 저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인생2막 20년 또는 30년을 새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새해에는 결단을 내리시고 제일 먼저 진단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나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후의 회복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4. 병원비 총액과 급여 비급여 부분

병원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진당일

구분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합계
초진당일	43,560원	721,380	0	764,940원
급여(공단부담)	33,151원	410,869	0	444,020원
비급여(본인부담)	10,409원	310,511	0	320,920원

수술당일

구분	검사로	입원비	수술비	합계
----	-----	-----	-----	----

수술당일	871,412	183,430	2,661,808	3,716,650원
급여(공단부담)	138,930	26,744	1,731,976	1,897,650원
비급여(본인부담)	732,482	156,686	929,832	1,819,000원

수술 다음날 - 소변줄 제거

구분	진료비	검사료	처치료등	합계
수술 다음날	30,510	149,948	92,742	273,200
급여(공단부담)	23,174	104,963	28,363	156,500
비급여(본인부담)	7,336	44,985	64,379	116,700

병원비 총 합계 = 초진 + 수술당일 + 수술 다음날

4,754,790원 = 764,940원 + 3,716,650원 + 273,200원

본인부담 금액 총합계

2,256,620원 (총 병원비의 47.50%)

총병원비 대비 본인 부담액 (비급여 부분)은 47.50% 정도 됩니다. 수술비용 관련해서는 공단부담금(급여부분)은 높습시다만 각종 검사비 부분에서 공단부담금이 낮은걸 보면 비급여성 검사항목을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환자 입장 에서나 병원 입장에서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여러가지 검사를 하는게 당연해 보입니다만, 과도한 검사라고 주장하기에는 환자로서는 어려운 부분 이므로 저 처럼 실비 보험이나 진단금 특약등으로 대비해 두는게 유용해 보입니다.

5. 보험회사 실비보험 청구 및 진단금 청구

보험사	실비보험/진단금	비고
현대해상화재보험	1,540,664원	실비
DB보험	450,000원	수술진단금
우체국보험	1,020,000원	수술진단금
합계	3,012,664원	+756,044 플러스P

보험금 수령액 3,012,664원

본인부담 병원비 2,256,620원

차 액 + 756,044 원 (플러스P)

현대해상화재 실비보험 청구시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 ☐ 진단서
- ☐ 진료비영수증
- ☐ 진료비 세부 영수증
- ☐ 입원확인서 또는 수술 확인서
- ☐ 처방전
- ☐ 약제비 영수증 (약국의 약봉투에 프린트 되어 있음)

현대해상화재는 휴대폰앱 설치후 앱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업로드 하면 신청완료 되고 승인되면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DB보험과 우체국보험에 입원 또는 수술 **진단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 진단서

☐ 입원확인서 또는 수술 확인서

☐ 보험금 신청서(휴대폰 앱으로 신청시 별도 신청서 불필요, 우체국보험 신청시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DB보험도 휴대폰앱 설치후 앱으로 간단하게 신청가능하며 관련서류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업로드 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승인되면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우체국은 아직 앱으로 신청이 안되며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져간 서류를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에필로그

제가 바라는 것은 한가지 입니다. 저처럼 똑같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이 되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시고 제일 먼저 진단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나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후의 회복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잘것 없는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